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미포조선, 겸용선 6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이탈리아 소재 Grimaldi Group으로부터 45,700DWT급 컨테이너-Ro/Ro 겸용선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5,710억원으로 인도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삼성중공업, LNG선 1척 수주

삼성중공업이 Maran Gas Maritime으로부터 LNG선 옵션분 1척을 확정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Total에 용선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Maran Gas는 삼성중공업에 수척의 LNG선 옵션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현대삼호중공업 VLCC 3척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이 GS에너지로부터 30만DWT급 VLCC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Scrubber 탑재형이며 척 당 선가는 9,000만달러이고 납기는 2021년까지라고 보도됨. GS에너지는 HMM에 장기(10년+옵션 기간) 나용선을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암모니아 추진선 2025년 서비스 투입

삼성중공업, MISC Berhad, 로이드선급, MAN Energy Solutions 등이 초기 설립 멤버로 참여한 Castor Initiative가 암모니아 추진 탱커를 2025년에 실제 서비스에 투입한다고 밝힘. 삼성중공업은 선박 설계 및 건조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Maersk, 유럽 최대 암모니아 프로젝트 추진

A.P.Moller-Maersk는 DFDS와 제휴하여 해상풍력터빈의 전력으로 유럽 최대 녹색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덴마크 서해안에 건설될 I-GW Power-to-X 전기분해 시설에서 2025년부터 친환경 선박용 CO2 free-암모니아와 농업용 비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에어택시' 개발하는 한화시스템, '탄소소재 얼라이언스' 참여

한화시스템은 탄소소재 수요 · 공급 기업들과 함께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상용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미래형 도심 자동차(PAV, Personal Air Vehicle) 분야 탄소소재 산업협력을 위해 구성된 이번 얼라이언스에는 한화시스템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대한항공, 효성첨단소재 등 탄소소재 수요 · 공급 기업 및 유관기관 11곳이 참여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